

나는 인일인입니다

11기 김성옥

‘성적이 아까우니 인일여고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업학교보다는 인문계 학교를 나오면 직업의 선택도 더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인천여중 3학년 5반 담임을 맡으셨던 홍영의 선생님은 그렇게 엄마를 설득하셨다. 황해도와 함경도에서 피난 나오신 어머니와 아버지는 억척같이 일을 하셨지만 6남매를 기르시고 공부를 시키시기가 벅차셨다. 6남매의 맏이로 태어난 나는 부모님이 힘들어하시는 것을 보고 상업학교로 진학하여 장학생으로 공부하고 얼른 졸업해서 돈을 벌어 부모님을 도와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선생님의 대답은 한마디로 노~ 인일여고에 진학해서 공부하는 것이 더 큰 미래가 보인다는 말씀이셨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진학한 인일여고. 동그란 흰 카라에 까만 리본끈을 묶고 다니면 지나가던 사람들은 선망의 눈으로 고개를 돌려가며 바라보곤 했다.

슬기롭고 튼튼한 여성

명랑하고 예의바른 여성

생각하며 일하는 여성

인일의 교훈은 평생 나의 좌우명이 되었다.

봄이면 피어나던 뒷동산의 개나리들, 여름이면 색색으로 피어 달콤한 향기를 뿜던 예쁜 장미꽃들, 담장에 빨갛게 피어나던 줄장미, 분수대의 시원한 물줄기들, 가을이면 알록달록 물들던 키 큰 나무들, 저녁이면 복도에서 바라보던 아름다운 노을빛. 너무도 착실하고 예쁘던 친구들, 너희들은 한다면 한다고 자신감을 심어주시던 선생님들.....

난 학교 방송반에 들어가 언니들의 지도조언도 들어가며 3년간 방송DJ를 하면서 조회 때면 마이크 스탠드 등 방송시설을 설치하고 점심은 미리 3교시 쉬는 시간에 얼른 먹고 점심시간에는 각 학급 스피커를 통해서 아름다운 곡들을 들려주었다. 그때 알게 된 수많은 클래식과 팝송 가곡들은 지금까지도 내 인생의 마음의 양식이 되어 삶의 활력을 넣어주고 있다.

어느덧 3년이 지나고 자연스레 진학하게 된 인천교육대학교에도 인일의 친구들이 많이 진학하여 마치 인일여고를 다니는 듯한 착각 속에 빠져 지내기도 했다. 그렇게 계속 된 인일의 끈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함께 하며 보물 같은 친구들로 지내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로 모이지도 못하고 힘든 우리 동기들에게 힐링이 되는 곡들을 하루에 한 곡씩 동기방에 올려주며 서로 만나지는 못해도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다. 요즘 들어 동기방에 새로 개국한 인일방송국은 친구들에게 고교시절로 돌아간 듯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고 한다.

나의 꿈결 같던 인일여고시절 내 인생이 꽃과 같던 시절이다.

나는 마음속으로 외쳐본다. 나는 인일인입니다~!